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015, 3(4), 23~27
http://dx.doi.org/10.15268/ksim.2015.3.4.023
ISSN 2288-1174(Print)
ISSN 2383-9651(Online)

대학생의 흡연 및 음주 행태 관련 분석

김민경 · 신경애∓
동주대학교 의료정보시스템과

A Study of the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among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Kim Minkyung, MPH · Shin Kyeongae, Ph.D∓
Dept, of Medical Information System, Dongju College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among some Korean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Methods : This study is based on data from National Survey of Health and Nutrition 2013 carri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respondents consisted of 319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8.0 program.

Results :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Conclusions : To explore the smoking and drinking problem among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the first step should be a national representative survey with scientific methods. And health promotion program should be targeted at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considering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Also, the health policy for students, through various ways, such as health counselling service, health education should be employed.

Key Words : smoking, drinking,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교신저자 :
신경애 kashin@dongju.ac.kr 010-8537-6777

논문접수일 : 2015년 9월 23일 | 수정일 : 2015년 11월 28일 | 게재승인일 : 2015년 12월 10일

Ⅰ. 서 론

흡연과 음주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여러 가지 질병과 사망, 사고의 요인으로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의 과도기적 시기에 존재하는 대학생의 경우 흡연과 음주 등에서 기인된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대학생들의 무절제한 음주가 각종 사고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본인 건강의 치명적인 손상 및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임국환 등, 2004; 김성우, 2012). 평생 건강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흡연과 음주 등을 대학생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건강문제에 소홀하기 쉽다(박순우, 2011). 입학 이후 각종 규제에 대한 해방감과 우리사회의 왜곡된 음주문화 및 행태의 답습으로 여러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는 집단이 대학생이라 할 수 있겠다(황태윤 등, 2007). 신입생 환영회를 시작으로 동아리 활동, MT 등 대학 내의 각종 모임에서 술과 담배를 접하면서 음주와 흡연에 익숙해지고 이를 사회생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대학생의 문제 음주 행동들은 학업지장, 성적인 문제 유발, 중독, 질병, 사고, 사망 등의 결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음주문화와 습관을 형성해 각종 문제를 야기 시킨다(방형애 등, 2008).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흡연은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각종 암과 질병 이환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또한 막대하다(정영호, 2010). 대학생은 최고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인만큼 이들의 흡연 및 음주 관련 행태나 관련 요인들은 차후 국가의 여론 형성이나 정책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며(Steptoe et al, 2002), 각종 질환 이환율 및 사망률, 건강수명 연장 등과 관련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의 건강증진 사업의 시행 및 여러 중재의 대상이 될 것이다(Nakamura et al, 2004; 황태윤 등, 2007; 계수연 등, 2011).

최근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생애 주기적 과도기 및 사회경제적인 비중의 중요성에 비해 대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관련 연구들은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혹은 개별요인으로서 흡연과 음주관련 연구 외에 대표적인 표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흡연과 음주의 상관성이나 건강행태 관점으로 수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대학생의 흡연 및 음주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5년 공표된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전국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이다. 총 조사자 8018명 중 결측치 741명을 제외한 7277명중 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 학생 319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 관련요인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첫째, 흡연과 음주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특성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흡연 및 음주의 관련성 파악을 위하여 하루 평균 흡연량과 음주량, 폭음빈도, 자살생각여부 등의 변수에 대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319명으로 남학생이 174명(54.5%)으로 여학생은 145명(45.5%)보다 조금 많았다. 음주 해당자는 89.3%였고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을 볼 때 5-6잔을 마시는 학생이 21.3%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10잔 이상이 21.3%, 3-4잔이 17.5% 순이었다. 폭음빈도에서는 월 1회 정도가 25.7%, 월 1회 미만이 24.5%로 높게 나타났다. 흡연 해당자는 20.7%였고 비 해당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가 가

족단위를 표본으로 진행되는 전국규모의 조사이므로 흡연에 관한 부분이 다소 축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6-10개비 7.2%, 16-20개비 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생각 여부가 있는 학생은 301명 94.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19)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74	54.5
	여성	145	45.5
음주여부	음주	285	89.3
	비음주	34	10.7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1-2잔	52	16.3
	3-4잔	56	17.5
	5-6잔	68	21.3
	7-9잔	41	12.9
	10잔이상	68	21.3
	비해당	34	10.7
폭음빈도	전혀없음	64	20.0
	월 1회 미만	78	24.5
	월 1회 정도	82	25.7
	주1회 정도	51	16.0
	거의매일	10	3.1
	비해당	34	10.7
흡연여부	흡연	66	20.7
	비흡연	253	79.3
하루평균 흡연량	1-5개비	16	5.0
	6-10개비	23	7.2
	11-15개비	12	3.8
	16-20개비	14	4.4
	21개비 이상	1	0.3
	비해당	253	79.3
자살생각 여부	유	301	94.4
	무	18	5.6
합계		**319**	**100(%)**

표 2에서는 하루 평균 흡연량과 음주량, 폭음빈도, 자살생각여부 등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흡연과 음주 및 건강행태 등은 서로의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하루 평균 흡연량과 폭음빈도, 자살생각여부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흡연을 한다고 보고된 학생수가 매우 작다는 점을 볼 때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흡연 및 음주실태 분석

구분		하루평균 흡연량						x^2 (p-value)
		1-5개비	6-10개비	11-15개비	16-20개비	21개비 이상	비해당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1-2잔	2(12.5)	3(13.0)	0(0.0)	1(7.1)	0(0.0)	46(18.2)	36.964 (0.110)
	3-4잔	1(6.3)	5(21.8)	2(16.7)	1(7.1)	0(0.0)	47(18.5)	
	5-6잔	3(18.7)	3(13.0)	2(16.7)	2(14.3)	0(0.0)	58(22.9)	
	7-9잔	2(12.5)	3(13.0)	3(25.0)	2(14.3)	0(0.0)	31(12.3)	
	10잔이상	6(37.5)	9(39.2)	5(41.6)	7(50.0)	1(100.0)	40(15.8)	
	비해당	2(12.5)	0(0.0)	0(0.0)	1(7.1)	0(0.0)	31(12.3)	
	계	16 (100.0)	23 (100.0)	12 (100.0)	14 (100.0)	1 (100.0)	253 (100.0)	
폭음 빈도	전혀없음	3(18.7)	3(13.0)	1(8.2)	1(7.1)	0(0.0)	56(22.1)	42.888 (0.000)
	월 1회 미만	2(12.5)	4(17.4)	3(25.0)	2(14.3)	0(0.0)	68(26.9)	
	월 1회 정도	4(25.0)	7(30.4)	5(41.6)	3(21.5)	0(0.0)	63(24.9)	
	주1회 정도	3(18.7)	8(34.8)	3(25.0)	7(50.0)	0(0.0)	30(11.9)	
	거의매일	2(12.5)	1(4.4)	1(8.2)	0(0.0)	1(100.0)	5(1.9)	
	비해당	2(12.5)	0(0.0)	0(0.0)	1(7.1)	0(0.0)	31(12.3)	
	계	16 (100.0)	23 (100.0)	12 (100.0)	14 (100.0)	1 (100.0)	253 (100.0)	
자살 생각 여부	유	12(75.0)	22(95.6)	10(83.3)	14 (100.0)	0(0.0)	243 (96.1)	17.208 (0.000)
	무	4(25.0)	1(4.4)	2(16.7)	0(0.0)	1(100.0)	10(3.9)	
	계	16 (100.0)	23 (100.0)	12 (100.0)	14 (100.0)	1 (100.0)	253 (100.0)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국내외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및 음주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개별 요인에 대한 연구 외에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이 많거나 폭음 빈도가 높은 경우 하루 평균 흡연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생각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하루 평균 흡연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가 활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전국 규모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인원이 작아 분석 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과 가족단위의 조사를 시행하는 조사 자료의 한계로 박순우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흡연, 음주, 자살생각 등 건강행태 관련 조사의 내용이 다소 축소 보고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2013년 일정 시점의 횡단면 적인 조사로 인과관계 파악이나 분석에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흡연 실태조사 결과에서 최초 흡연 시작연령이 20.6세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 흡연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박성희 등, 2012), 대학시절 시작한 흡연이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인의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Steptoe et al, 2002; 김성우, 2012), 흡연을 하는 경우 음주, 스트레스 등의 다른 건강행태의 문제점을 동반한다는 점(박순우, 2011) 등은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흡연 및 음주관련 요인들을 분석이 계속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낸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흡연 및 음주 행태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고 흡연 및 음주관련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다양한 방안으로서의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의 건강증진계획 운영에 있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은 주요과제로 선정되어 각종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으나 특별히 대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들을 살펴보면 첫째, 금연서포터즈 활성화를 들 수 있겠다. 현재까지 금연서포터즈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해소, 자살예방 서포터즈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접근방안이 필요하겠다. 특히 흡연과 음주는 서로간 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황태윤 등, 2007) 대학생 시기에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관련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보건소와 연계한 금연 및 절주클리닉 운영이다. 주기적인 금연 및 절주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효과적인 중재 방안으로 보고되었다(Nakamura et al, 2004; 박성희 등, 2012). 셋째, 대학차원에서의 접근방안으로 대학 내의 금연 구역 설정, 관련 교양강좌 개설, 각종 보건교육 확대 실시 등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방안으로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지정, 음주 단속 및 처벌 강화, 홍보 영상 제작 및 대국민 홍보 등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로서 대학생 흡연 및 음주 행태 관련 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와 효과적인 중재방안의 모색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성우(2012). 일지역 대학생들의 흡연행태와 흡연관련 특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3(2), 59-76.

계수연, 최슬기, 박기호(2011). Intervention Mapping 설계를 통한 중학생 대상 흡연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2(3), 1-15.

박성희, 황정해, 최윤경 등(2012). 성인 흡연자의 금연 프로그램 효과: 무작위대조군 실험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교육증진학회지, 29(3), 1-14.

박순우(2011). 대학생 흡연 관련 행태 및 흡연에 의한 건강문제. 보건교육증진학회지, 28(5), 35-49.

방형애, 임국환(2008). 대학생의 음주·흡연 예방교육 및 규제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도 조사.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9(1), 143-156.

임국환, 이준협, 최만규 등(2004). 대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실태와 관련성 분석. Korean Public Health Res, 30(1), 57-70.

정영호(2010). 비만과 흡연의 생애의료비 비교분석 및 건강증진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분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0(37), 10-37.

황태윤, 이중정, 이경수 등(2007). 일부 대학생들의 음주와 흡연행위와의 관련성.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 32(2), 97-105.

Nakamura M, Masui S, Oshima A, et al(2004). Effects of stage-matched repeated individual counseling on smoking cessa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or the high-risk strategy by lifestyle modification (HISLIM) study. Environ Health Prev Med, 9(4), 152-160.

Steptoe A, Wardle J, Cui W, et al(2002).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obacco smoking beliefs and risk awarenes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3 countries. Addiction, 97(12), 1561-1571.